**🚀 랭체인톤 발표 스토리 라인**

**발표 목표:** 청중이 '세봇이'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기술적 차별성과 향후 비전까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1부. 오프닝 및 문제 정의> (약 4분)**

**(슬라이드 1: 타이틀 화면 )**

안녕하세요, **'부가세는 처음이라'** 팀입니다.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업자 분들을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부가세 전문 챗봇이 사용자의 세금 비서가 되어, 복잡한 세금 업무를 혼자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2: 목차)**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저희가 발견한 **문제점을 정의**하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챗봇 '세봇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봇이'의 **핵심 기능을 시연**하고, 그 구현 배경이 된 **기술 스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내린 결론**과 저희 팀의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공유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슬라이드 3: 간지)**

그럼 저희가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되었던 **불편함**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4 )**

지금은 7월 첫주. 바로 오늘부터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세무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잠시 맡았다가, 국가에 전달해 주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환급'과 '가산세'** 때문입니다. 정확한 신고는 당연한 의무를 넘어, 내 돈을 돌려받고 불필요한 손실을 막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죠.

저희 팀원 중 한 명인 **은서님**은 지난 1월, 바로 이 신고 기간에 세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5)**

은서님이 세무서에서 만난 분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을 한가득 들고 오신 동네 식당 사장님부터, 노트북으로 작업 내역을 보여주시던 젊은 프리랜서 디자이너까지.

하지만 놀랍게도, 사업의 종류와 나이에 상관없이 이분들의 질문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세금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공제 되는 거 맞나요?"**

**"홈택스는 복잡하고 세무사 비용은 부담돼요."**

슬라이드에 계신 60대 임대사업자 어르신처럼, 모두가 세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작아지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분들의 진짜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금은 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곳이 없다.’** 바로 이것이 저희가 해결해야 할 핵심이었습니다.

**(슬라이드 6)**

앞서 말씀드린 세무서에서의 경험은 저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까?' 저희는 그 원인을 세 가지 대표적인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내 상황에 딱 맞는 **세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둘째, 관련 정보를 찾으려 해도 너무 **복잡하며,** 셋째, ChatGPT 같은 AI에게 물어봐도 시시각각 변하는 세법 때문에 **'환각 현상'**, 즉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정확한 원본 문서'**, 즉 국세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사용자 개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저희 해결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2부. 솔루션 '세봇이' 소개> (약 2분)**

**(슬라이드 7: 간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어려움에 대한 저희의 해답, 챗봇 **세봇이**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8)**

저희 세봇이는 "내 상황에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봇이는 크게 두 가지 핵심 기능으로 여러분의 세무를 돕습니다.

첫째, **부가세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특정 항목의 공제 가능 여부나 신고 대상 여부까지. 헷갈리는 부분들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는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GPT의 환각 현상을 방지하는 RAG 구조**를 통해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용어 해설부터 신고 기준까지, 세봇이의 모든 안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세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여, **공제 가능한 금액과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도출**해드립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대신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세봇이는 정확한 정보 안내와 실무 자동화를 통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 신고 과정을 가장 확실하게 돕는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 9)**

기존 홈택스에는 세금비서가 있습니다. 세금비서와 과 '세봇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입니다.

(왼쪽을 보며) 기존 홈택스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복잡한 메뉴 구조를 공부하고, 올바른 서식을 찾아 정보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모든 책임과 노력이 사용자에게 있었죠.

(오른쪽을 보며) 하지만 세봇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그저 친구에게 말하듯 **자신의 상황만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봇이'가 알아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 알려줍니다.

즉, **사용자가 시스템에 맞춰야 했던 방식에서,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맞춰주는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3부. '세봇이' 핵심 기능 시연> (약 6분)**

**(슬라이드 10 간지)**

**(슬라이드 11 시연화면)**

**<4부. 기술 스택 및 향후 발전 방향> (약 2분)**

**(슬라이드 12 간지)**

**(슬라이드 13 기술스택)**

**(슬라이드 14 질문 검증)**

**(슬라이드 15 발생한 문제)**

**(슬라이드 16 간지)**

**(슬라이드 17 프로젝트 결론)**

프로젝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개발한 '세봇이'는 유의미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세액 착오를 줄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이는 자연스럽게 오류 신고 및 관련 민원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시스템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금은 법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GPT나 검색 엔진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세봇이'처럼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봇이'는 단순한 AI 챗봇을 넘어, 정확한 세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입니다.

**(슬라이드 18 향후 발전 가능성)**

마지막으로 '세봇이'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과 고령층 친화 UI를 도입하여, 디지털 취약 계층도 쉽고 편리하게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실무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신고 일정 알림, 홈택스 사용법 안내와 같은 실질적인 도구를 탑재하여,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사용자의 업무를 직접 돕는 보조 도구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지원하는 세목을 확장하겠습니다. 현재의 부가가치세를 시작으로, 향후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등 더 다양한 세무 영역까지 서비스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통해 '세봇이'를 궁극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필수적인 종합 세무지원 챗봇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5부. 마무리> (약 1분)**

**(슬라이드 19 간지)**

**(슬라이드 20 작업방식)**

**(슬라이드 21 참고문헌)**